

은행

홍콩H지수 ELS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기대

김지원

금융 | jiwonkim@daolfn.com

● 총당금 부담 해소로 은행주 투자심리에 긍정적일 것

2026년 6월 4일 오전 금감원 임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5개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대한 과징금 수준 결정한 것으로 언론 보도

과징금 수준은 약 6,000억원으로 알려짐. 지난 2025년 11월 19일 의결된 금소법 개정안상 과징금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에 근거하여 추론하면, (1) 중대성 약함에 따른 부과기준을 1% 이상 30% 미만 구간 적용, (2) 자율배상 약 1.3조원 실시 등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에 따른 감경사유 충족이 적용되었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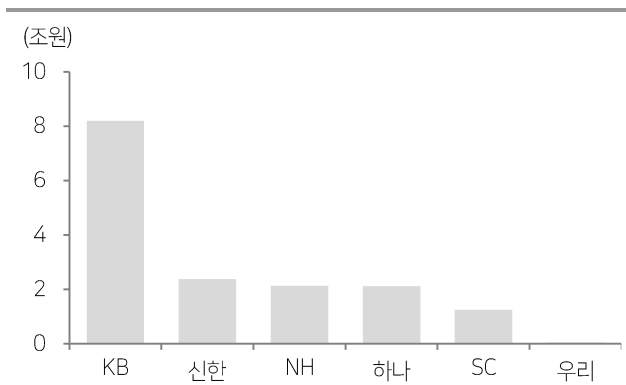
향후 금융위 의결과 부과기준을 포함 정확한 적용값은 확인 필요. (1) 중대성 평가 구간 내 부과기준을 중간값, (2) 감경사유 최대 50% 적용을 가정하여 은행별 통보될 예상 과징금 추정일 뿐임을 유의. 은행에 따라서는 기적립 총당부채에서 환입 가능성도 염두

Fig. 1: 은행별 총당금 추가 적립 혹은 환입 가능성 판단: 예상 과징금 단순 추정 (십억원)

(십억원)	판매잔고	(A) 법적상한	(B) 중대성 평가	(C) 감경기준 적용	(추정) 과징금
KB	8,197	4,099	615	307	307
신한	2,370	1,185	178	89	89
하나	2,118	1,059	159	79	79
우리	41	21	3	2	2
NH	2,131	1,066	160	80	80
SC	1,243	621	93	47	47
합산	16,101	8,050	1,208	604	6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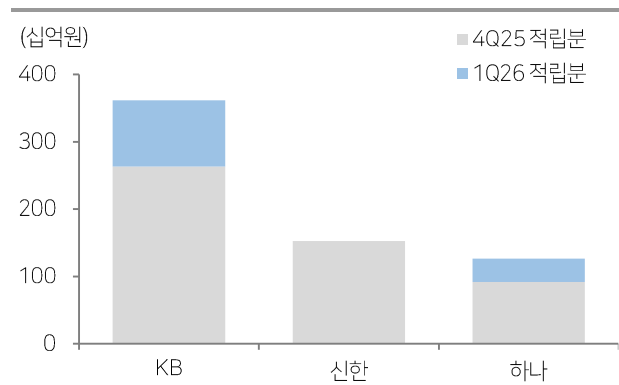
Source: 다올투자증권 추정

Fig. 2: 은행별 홍콩H지수 ELS 판매잔액 규모



Source: 언론보도, 다올투자증권

Fig. 3: 은행별 ELS 불완전판매 관련 기적립 총당부채



Source: 각 사, 다올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이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91.7% HOLD: 8.3% SELL: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이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이상 ~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